

1890년대 변혁지향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연계성 - 일본의 대조선정책 -

이이화*

제1부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전사 - 동학의 재건과 교조신원운동

1. 최시형의 포덕활동과 신미사변
2. 최시형의 동학 재건운동의 결실
3. 공주-삼례집회와 광화문 복합상소운동
4. 반의세운동과 전국적 규모인 보은집회-원평집회

제2부 일본의 개입과 일본군 출병의 명분

전제 -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

1. 농민전쟁 이전의 한반도 정세
2. 천진조약 이후 조선의 출병문제

마무리 - 변혁운동의 단계적 상승의 결과

제1부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전사 - 동학의 재건과 교조신원운동

*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1893년에 열린 보은집회-원평집회는 1894년 전면적 동학농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해 전사로 기록될 수 있다. 대규모의 두 집회는 동학의 창도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룩된 결과였다. 그 뒤의 과정도 몇 단계를 거치는 험난한 노정을 걸었다. 동학농민전쟁 발발 2주갑을 맞이하는 즈음에 이 일련의 과정과 그 연계성을 더듬어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최시형의 포덕활동과 신미사변

崔時亨은 1864년 교주 崔濟愚가 左道亂正이란 죄명으로 처형을 당한 뒤 북쪽 대도주라는 이름으로 포덕활동을 즐기치게 별였다. 그는 潛行을 통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 산악지대를 누볐다. 그런 끝에 1870년에 들어서는 동학교도의 숫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서 동학 재건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최시형이 영월에서 지하 포덕을 하고 있을 때였다. 충청도 홍성출신으로 충청도 내륙과 경상북도 일대에서 끊임없이 변혁운동을 벌이던 李弼濟가 최시형에게 접근했다. 이필제는 최시형을 찾아와, 선사(최계우)의 伸冤을 위해 선사가 순교한 날인 3월 10일을 기해 봉기하자고 건의했다. 그러자 최시형은 처음에는 시기를 기다리자고 말하면서 거절했다가 마침내 허락을 했다. 그리해 군사 500여 명을 모아 무장을 하고 동해변에 있는 군사요지인 영해부를 습격했다. 이 관련 기록을 보자.

야만에 성중에 돌입해서 관아에 불을 지르고 군기를 탈취하자 본부의 별포군들이 창황해서 급히 달아나면서 의병을 향해 방포하다가 흩어졌다. 필제와 낙군이 곧바로 동헌에 들어가서 부사를 끌어내려 죄를 따져 묻기를 “너는 국록을 먹는 신하로서 정사를 어지럽히고 그릇쳤으며 백성 학대하기를 이같이 하고 재물 탐하기를 저같이 하였다. 거리에는 방문이

붙고 저자에는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하다. 이 고을 민정이 이러하니 죄를 어찌 벗어나리오. 비록 용서하고 싶으나 의리로는 탐학한 관리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¹⁾

이필제와 김낙균은 동학교도 중심의 군사들에게 죽창과 조총 그리고 횃불을 들려 영해부의 관아를 습격하자 군교와 구실아치들은 모두 달아났다. 이들은 먼저 군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거두고 동현으로 뛰어 들어 부사 이정의 죄를 물어 살해했다. 이들은 성중을 손아귀에 넣고 소를 잡아 나누어 먹었다. 이어 이방에 보관되어 있던 돈 께짝을 부수어서 동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민간에서 밥이나 술을 가져갈 적에도 꼬박꼬박 돈을 지불했다.

이들은 하룻밤 마음껏 호기를 부린 뒤 다음 날 이틀 만에 부중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영양쪽으로 달아나다 일월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으로 맞섰다. 하지만 관군에게 밀려 수십 명이 잡혀가거나 죽었고 최시형과 이필제 등은 사망으로 빨뿔이 달아났다. 관군들은 이들을 색출하려고 일대 수색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동학조직은 무너졌고 교도들은 달아나 숨었다. 최시형은 몇몇 제자와 영월 산중으로 숨어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동학에서는 신미사변이라 부른다.

이필제는 문경 새재 등지에서 동지를 모아 다시 봉기를 준비하다가 잡히고 말았다. 그는 모반대역죄인으로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다가 의금부로 넘겨졌다. 이필제의 문초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성명을 이리저리 바꾸고 종적을 날려 숨겨서 도당을 굶어 모아 난을 일으키려 한 것은 무슨 복심인가? 한번 굴러서 湖中(충청북도 지방)을 선동했고 두 번 굴러서 영남에서 옥을 일으켰고, 영해에까지 손을 뻗어 작변했으니 지극히 끔찍하다. 또 독한 말은 간담을 흔들어놓는다. 이미 오래 전에 도마 위에 오른 고기였는데 그물을 빠져 나간 고기가 아직도 목숨

1) 『道源記書』.

을 붙이고 있으니 오래 신인이 다 같이 분을 참지 못하는 바이다. 또 조령에서 도둑 무리를 매복시켜 흉측한 계획을 품었다가 죄악이 차서 지절로 잡혀온 것이다.²⁾

이필제의 행적을 요약해 나열하고 있다. 이필제가 1871년 잡혀 동지인 정기현과 함께 처형을 당한 뒤 최시형은 다시 수색을 벗어나려 잡행을 거듭했다. 다음 기록을 보자.

8월에 이르러 갑작스레 문경의 변고를 듣고 놀라마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해보니, 필제와 기현의 거사였다. 좌석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 같은 變危가 있는가? 필제의 목숨이여, 하늘이 어찌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망령되어 스스로 화를 만들어내니 어찌 이보다 심한 逆理가 있겠는가?³⁾

전국에는 다시 동학교도에 대해 일대 수색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최시형은 모진 홍역을 치르고 다시 동학 재건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해서 동학은 모진 수난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에서 이필제사건을 두고 경계로 삼았다. 이필제는 직업적 변란주모자로 활동하면서 동학 조직을 이용하거나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최시형은 교조 신원을 위해 한때 동조했던 것이다. 두 사건으로 10년 적공이 날아갔던 것이다.

2. 최시형의 동학 재건운동의 결실

최시형은 잠행하는 동안, 최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언제나 보따리를 싸놓고 마을 앞을 바라보면서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지를 살폈다 한다. 최시형은 쉴 새 없이 옮겨다니면서 포덕을 했다. 그러면서

2) 『推案及鞫案』의 「역적필제기현국안」.

3) 『道源記書』.

동학교도들끼리의 호칭을, 평등을 뜻하는 接長이라 부르게 했으며 조직의 중간 책임자를 접주라 부르게 했다. 또 제자들의 이름에 時자를 넣어 지어주면서 桃園結義를 뜻하는 형제의 의를 다졌다.

1880년 경진년 5월에는 오랜 준비 끝에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 刻板所를 설치하고 수운문집의 간행을 서둘렀다. 최시형의 기억에 따라 유실된 수운의 여러 글을 복원하고 인쇄해 배포했다. 都廳 최시형 아래, 총지휘를 맡은 감역은 姜時元이었으며 기금을 낸 명단을 보면 상주 정선 인제 청송 등 네 곳이었다.⁴⁾

이렇게 차례로 복원해 배포한 책자가 『동경대전』이며 1881년에는 수운의 가사를 모은 『용담유사』를 단양 천동에서 개간했다. 이어 1883년 동경대전간행소를 충청도 목천에 두고 동경대전 1천 부를 발간해 배포했다. 두 책자의 간행 배포로 동학교도들은 교리와 교훈을 책을 통해 익힐 수 있었다.

1883년에는 손병희 손천민 박인호 황하일 서인주 안경선 등 인사들이 몰려와 교도가 되었다. 이어 유교 이론가인 김연국도 합류했다. 이들은 충청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사들로 지식인 그룹에 속했으며 뒷날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리해 동학 포덕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⁵⁾

이어 조직을 六任으로 지정했는데 곧 敎長, 敎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으로 구성했다. 육임은 지역단위 또는 인적 단위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時 자 이름 대신 菴 자의 호를 지어주었다. 곧 김연국에게는 구암, 손천민에게는 송암, 손병희에게는 의암, 박인호에게는 춘암 등의 호를 주어 사제 간의 연원을 분명하게 했다.

끝으로 최시형은 거처를 보은 帳內里로 옮겨 살았다. 최시형은 일정한 거주지를 장내리에 두어서 장내리가 도집소의 역할을 했고 많은 교도들이 이곳을 찾아들었다. 최시형이 때때로 상주 등 다른 곳에서 거처하기도 했으나 이 무렵부터 장내리가 본거지가 되었다.

1888년에 최시형은 전주에서 기도식을 거행하고 도제와 함께 삼례

4) 『道源記書』.

5) 『天道敎教會史草稿』의 地統 참고.

로 나와 포덕활동을 벌였다. 이때부터 최시형은 호남지방으로 진출했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마당에서 포덕식을 거행할 정도로 인파가 몰려 들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문경사변으로 지목을 받은 최시형을 체포하려고 수색령이 연달아 내려져서 인제로 피신하기도 했다. 그런 속에 서인주(서장옥의 별명)가 체포되자 뇌물을 써서 풀어주게 하기도 했다.

그 뒤 최시형은 충청도 서쪽에 위치한 공주 등지에서 포덕하기도 하고 다시 호남으로 진출해서 손화중 김기범(김개남의 본명) 김덕명 등을 입도시켰다. 이때부터 호남에서는 많은 교도들이 몰려들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제 최시형은 최보따리가 아니라 엄격한 동학 교조로 위치를 굳혔다. 이 무렵 교도들은 왕조에서 소외된 지식인 그룹을 비롯해 새 세상을 열망하는 민중, 일대 변혁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3. 공주-삼례집회와 광화문 복합상소운동

동학의 교세가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확대되자 관가에서는 이를 포착했다. 그리해 1892년 1월 충청감사 조병식은, 동학은 左道亂正의 도이니 금압한다는 금령을 내리고 도인 수색에 나섰다. 포졸들은 연달아 도인을 수색하면서 잡아들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전라감사 이경직도 금령을 발하고 금압에 나섰다. 그리해 최시형이 다시 진천 상주 등지로 잠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서인주 서병학 등 강경파는, 최시형을 찾아가서 수운의 伸寃을 위해 상소문을 만들어서 광화문에 모여 호소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최시형은 이 신원의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르고 허락하지 않았다.

1) 최초의 대규모 집회인 공주-삼례집회

그러자 서인주 서병학은 최시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주에 교도를

모아서 조병식에게 항의의 글을 보냈다. 조병식도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문을 각 고을에 보냈다.

수재(수령)가 된 자들이 동학 보기를 함정과 같이하여 饑民(부호)을 거짓으로 엮어서 재물을 토색하고 각 고을의 구실아치들이 이를 빙자해 침어함이 열에 여덟아홉에 이르고 있다. 양민이 이미 보존하기 어려우니 죄를 어찌 다시 따지며 회개하고 自新의 방법이 있으나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이 무리 또한 우리 성상의 化育의 하나이니 비록 이교에 빠졌으나 그 정상을 알아보니 가히 용서할 만하다.⁶⁾

그리고 나서 동학 교도의 금압을 중지케 하고 거세게 항의하는 교도들은 무마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조병식은 동학 교도들이 구실아치들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민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변란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최시형도 강경파들의 끈질긴 요구를 묵살할 수 만은 없었다. 이미 신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최시형은 마침내 신원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통유문을 전국의 문도들에게 보내 삼례로 모이게 지시했다.

하늘을 이고 뜻을 세워서 선사의 은덕을 받아 이로써 도유된 자 누가 신원할 마음이 없으리오. 그러나 우금 30여 년에 지목이 엄혹함으로 인해 감히 움직이지 못한 것 또한 하늘이오 지금 충청감영에 소원하며 전라감영에 호소코자하는 것 또한 하늘이라. 각 두령은 포접 안의 도우를 관리해서 일제히 삼례역에 내회하라. 이 글을 보고 내회치 아니하면 이는 그 죄 사은을 저버리고 사문에 벗어남이오 그 의리 神天에 어그러집이니 ... 7)

6) 『天道敎教會史草稿』, 포덕 33년 10월조.

강경한 어조로 엮어져 있는 이 통유문은 최시형이 전국의 동학교도들에게 동원을 지시한 최초의 문서가 되었다. 그리해 수천 명의 교도들이 삼례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전라감사 이경직(천도교교회사 초고의 원문에는 이현식으로 잘못 기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정을 냈는데 앞에 최수운이 동학을 창도한 의의를 전제하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오도를 서학 여파로 지목하여 조사해 잡아들여 가목에 가두고 전재를 토색질해서 죽은 자와 상한 자가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향곡의 호민이 동학도라는 소문을 들은 대로 침학을 해서 집을 허물고 재산을 빼앗음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 도유로 이름한 자는 모조리 유리해 살 곳이 없다.⁸⁾

여기에 또 선사의 신원을 조정에 알려 자신들의 뜻을 전하라고도 전제하고서 이런 압제를 막으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이경직은 처음에 동학은 조정에 금지하는 것이니 물러가라고 했지만 1주일이 되도록 흠어지지 않고 불온한 기색을 보이자, 겁을 집어 먹고 교조 신원의 건에 대해서는 조정에 알릴 것이며 수령이나 서리들이 교도를 침학하는 일은 막겠다고 약속했다. 교도들은 이 약속을 받아내고 삼례역에 모인 교도들을 해산시켰다. 삼례거사는 공주거사와는 달리 표면으로는 성공을 거둔 셈이다.

2) 광화문 상소운동의 실패

삼례집회를 끝낸 뒤 지도부의 강경파들은 연달아 복합 상소를 주장했다. 이제 상소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리해 최시형도 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최시형은 다시 통유문을 내서 광화문 앞에서 복합 상소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

7) 『天道敎教會史草稿』, 포덕 33년 10월 27일조.

8) 『天道敎教會史草稿』, 포덕 33년 10월 27일조.

1893년에 들어 복합상소운동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고 2월 8일에 김연국 손천민 박인호 손병희 등이 서울에 奉疏都所를 차리고 소수는 박광호, 소문 작성은 손천민이 맡아 2월 11일에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단행했다. 이들 대표자 수십 명이 광화문에 엮드려 소문을 올렸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을 서학으로 지목해서 최제우를 좌도난정으로 얹어 극형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동학은 동방에서 나와 동인이 배우는 바가 되니 이단이 될 수 없다고 변설했다. 그러므로 “동학을 가리켜 서학으로 공격치 말고 동포를 몰아서 이단으로 꾸짖지 않는 게 옳다”고 했다.

둘째 도신과 수재들은 민족을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하고 鄉奸과 토호는 도인 보기를 貨泉 같이해 誅求와 토색하기를 끊임이 없지만 동학 교도는 安心正氣로 근본을 삼고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깔아놓았으니 궁극적으로 교조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동학을 공인하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았다. 시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적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두고 변혁을 지향한 상소운동이 아니라는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에 대한 임금의 전교는 “정학을 높이고 이단을 배척하는 것은 열성조에서 전해오는 법”이라 전제하고 “이단을 내세워 야료를 부리는 자들은 선비로 대우할 수 없으며 나라 법에 따라 죽임이 내려질 것이다”⁹⁾고 했다. 그리해 교도들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면 이 상소운동은 변혁지향인가, 단순한 교조신원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교조신원을 빙자해서 변혁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드러내놓고 변혁지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측 기록에는 이때부터 眞東學黨과 僞東學黨이 구분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9) 『高宗實錄』, 高宗 30년 2월 15일조.

4. 반의세운동과 전국적 규모인 보은집회-원평집회

광화문 복합 상소가 실패로 끝나자 교단 지도부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교도들은 한편으로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태를 예견하고 있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강경파들은 새로운 행동을 위해 더욱 민활하게 움직였다.

이 시기의 움직임에 두고 “혹 모피배 도인을 핑계대서 擾民作鬧하는 자도 있고 혹 중문에 종사하는 자도 도를 믿는 데에 독실치 않으며 수도도 정성스럽지 못해서 세인의 지목을 불러왔다”¹⁰⁾고 했다.

1) 서울에 나타난 반의세운동

광화문 복합 상소운동이 끝난 뒤 전주 주변과 서울에서는 榜文 또는 소요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일본공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전라감사 전보에 따라 동학당 수만 명이 서울을 향해 올라갔다고 했고 그 중 20여 명이 포도청에 잡혔다고 했다. 또 전라감사에게 외국의 선교사와 상인은 모두 나라에 해를 끼치니 속히 물리치라는 등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總代 20여 명이 서울로 올라와 정부에 건의하려다가 포도청에 잡혔으며 그들 무리 1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들었다고 했다.¹¹⁾

김윤식이 쓴 『속음청사』에는 이 관련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한다. 맨 먼저 프랑스공사관에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금하는 법을 어겨가면서 교당을 짓고 선교하고 있다. 만약 행장을 꾸려 속히 돌아가지 않으면 3월 7일 우리 당이 너희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깡그리 쓸어버릴 것이다”는 방문을 붙였다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방문이 미국공사관 일본공사관과 교회당, 학당 그리고 서울 거리 곳곳에 나붙었다. 일본공사관에 붙은 방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10) 『天道教教會史草稿』, 포덕 34년조.

11) 『東京日日新聞』, 1893년 음 3월 3일자.

너희는 비록 오랑캐지만 천품 받음이 대략 같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미 인도에 처하였으면 각기 나라를 다스리고 각기 생산을 보호하여 길이 강토를 보존하며 위로는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망령되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응거하여 공격을 장기로 삼고 살육을 근본으로 삼으니 진실로 무슨 마음이며 끝내는 무엇을 하려는가? 안위의 기회는 너희들이 스스로 잡는 것이니 후회하지 말라. 우리는 두말하지 않겠노니 급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¹²⁾

이들 방문은 광화문 복합 상소의 내용과는 달리 斥倭洋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3월 7일(양 4월 21일)을 거사일로 내걸고 있었다. 그리해 서울의 인심은 요동을 쳤다. 프랑스공사관에서는 이를 대비키 위해 본국에 군함 3척을 인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공사관에서는 연일 본국에 정세를 보고하고 대책 강구에 골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가슴을 떨며 몸을 숨기면서 나들이를 삼갔고 도성민들은 난리가 난다고 보따리를 싸서 낙향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면 이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였던가? 손천민 손병희 박인호 등은 광화문 복합상소 뒤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갔으나 서인주 서병학 등은 복합상소에 참여치 않고 독자행동을 벌였다. 또 “거괴로 전주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접을 이끄는 서인주와 황하일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남접의 지도자인 전봉준 김개남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뒷날 최시형 중심의 북접세력은 보은 장내리로 모였고 서인주 전봉준 등 남접세력은 금구 원평으로 모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게 사리에 맞을 것이다.

2) 반의세를 외친 보은집회

12) 『日本外交文書』, 1893년 4월 10일자.

1893년 봄 광화문 복합 장소 뒤 동학지도자들은 일단 서울에서 물러나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자책을 했다. 그리해 다음 단계로 대대적인 집회를 서둘렀다. 최시형은 이런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해 다시 전국 교도들에게 보은 장내리로 모이라는 통문을 띄웠다. 3월 10일 보은 장내리에는 충청도와 경상도 내륙, 전라도의 위 지역의 동학교도들이 중심세력을 이루고 경상도 진주 하동, 강원도 강릉 정선, 경기도 이천 안성, 충청도 서산 홍성, 전라도 해남 장흥 등 먼 지역의 교도들이 합류해 수만 명의 다중을 이루고 있었다. 장내리 언저리에 보국안민 광제창생 척양척왜의 기치를 내걸고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이날 보은 관아의 3문 밖에는 동학 창의 유생의 이름으로 통고문이 붙여져 있었다. 그 내용은 “지금 왜양의 도둑이 심복에 들어 있어 큰 난리가 극도에 달해 있도다. 진실로 지금의 서울을 보건대 끝내 이적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였고 “왜양을 쓸어 大報의 의리를 본받고자 한다”고도 했다.¹³⁾ 이에 대해 조정에서 선무사로 파견된 어윤중은 이렇게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부적이나 주문을 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참위를 전해 세상을 속이려 했다가 끝내 지략과 포부와 재기를 안타깝게 꺾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들어왔고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걸 분히 여겨 백성을 위해 그 목숨을 바치려는 자가 여기에 들어왔고 외국 오랑캐가 우리 이권을 빼앗는 걸 통분히 여겨 망령되이 그들을 내쫓는다고 큰 소리 치는 자가 여기에 들어왔고 탐욕스런 장수나 부정한 관리의 학대를 받아도 호소할 곳 없는 자가 여기에 들어왔고 경향에서 무단에게 위협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자가 여기에 들어왔고 ... 14)

어윤중은 조정에 보고를 올리면서 이들의 성분을 두고 모든 소외되

13)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에서 재인용.

14) 『聚語』, 선무사 재차 장계.

어은 계층으로 불평불만에 찬 세력이 모여들었다고 분석했다. 관변층에서 최초로 동학교도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 불만세력은 바로 기층민중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들을 무마할 양호선무사로 어윤중을 임명하고 충청병사인 홍재희에게 군사 300명을 이끌고 가게 조치했다. 어윤중은 용기 있게 장내리로 와서 임금이 내린 칙유문을 반포하고 관리의 횡포를 막겠다는 따위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했다. 어윤중은 군사들을 시켜 대포를 설치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교도들의 뜻을 임금에게 전해 풀겠다는 따위 강온작전을 구사했다.

그러자 순진한 교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읍하기도 하고 일부 교도들은 믿어보아야 한다는 뜻을 보여 흔들렸다. 이에 지도부에서는 4월 1일, 3일 안에 해산하기로 약속하고 추후의 조치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뒤 최시형 손병희 지도자들은 야금을 타서 도피했으며 서병학은 자신이 불행하게도 동학에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집회를 자신들이 아니라 원평집회의 주도자들이 통문을 내고 방문을 붙였다고도 말했다.¹⁵⁾ 보은집회에 납첩의 지도자인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을 지목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윤중의 위와 같은 기술이 과장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선무사가 보은집회에 나타나 회유를 하자, 지도부에서는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조건에서 대결할 수 있는 의지가 약했던 것이다. 더욱이 기일을 맞추지 못한 지역의 교도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고 있는 마당에서 지도부는 중간에서 몸을 뺐던 것이다.

하지만 보은집회의 역사적 의미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2-3만 명이 최시형의 통유문에 따라 일시에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도들의 결집력이 견고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변혁의지를 이 집회를 통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다음 이 집회에서 처음으로 보국안민 광제창생 척양척왜의 기치가 내걸려 농민군의 강령과 같은 슬로건이 드러났다는 점을 읽을 수 있

15) 『聚語』의 담지- 발보에 나옴.

겠다. 이 집회에서는 단순한 교조신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게 아니었다. 반봉건과 함께 반외세의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이 집회에서 洋木の 불매 등 외국 수입상품을 배격하고 면포 등 국산 상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농민적 이해를 내걸어 외국 상품배격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서양과 일본의 상품시장화를 배격한 것이다. 그리하여 보은집회는 동학농민전쟁사에서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남접세력 주도의 원평집회

어윤중은 양호선무사의 자격으로 4월 3일 발길을 호남으로 돌렸다. 어윤중은 처음부터 호서 호남의 소요사태의 선무 임무를 맡아 내려왔던 것이다. 조정에서도 호남의 집회를 미리 알고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어윤중은 호남으로 내려오다가 원평집회가 해산되었다는 전갈을 듣고 발길을 돌려 상경했다.

전봉준 계열은 보은집회와 때를 같이해서 금구 원평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 집회에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侍天教釋史』에는 “전봉준이 사사로이 교도들을 빼앗아 진라도 금구군 원평에 주재했다”고 했고 또 최시형이 보은집회에서 남접들이 교도들의 난동을 도모하려 한다고 해서 조직을 단속했다고도 했다. 보은집회에 참여한 김개남 등을 일컬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원평집회를 주도한 세력을 두고 의정부에서는, 통문을 보내고 방문을 붙인 인물로 호서의 서병학, 호남의 김봉집 서장옥 등을 지목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기록했다.¹⁶⁾ 여기에 나타난 김봉집을 두고 정창렬은 전봉준의 이명이라고 증거를 댔다.¹⁷⁾

전봉준이 서장옥 계열이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황현은 동학의 포에는 최시형계열의 法布와 서장옥계열의 徐布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서

16) 『日省錄』, 계사년 4월 10일조.

17) 정창렬, 「고부민란의 연구」, 『한국사연구』 48, 1985.

포가 먼저 일어나고 법포가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서포를 起包라 하고 법포를 坐包라 이름 지었는데 전봉준이 일어날 적에는 모두 서포였다”¹⁸⁾라고 했다.

원평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서포였다는 것이요,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접이라 불렀고 남접은 처음 서장옥 황하일 등이 지도했다고 했다. 김윤식은 “전라도에는 금구 원평의 도회가 있었는데 괴수는 보은에 사는 황하일, 무장집주 손화중으로 만여 인을 거느리고 21일에 내도한다는 뜻으로 통문을 보냈다 한다”¹⁹⁾라고 기록했다.

아무튼 남접의 행동대장인 전봉준을 비롯해 김개남 손화중 등은 보은집회가 해산하는 걸 보고 원평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 계속 잠적을 하면서 준비를 거친 끝에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했던 것이다.

제2부 일본의 개입과 일본군 출병의 명분

전제 -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

일본에서는 1868년 ‘明治維新’이 등장해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진출론과 征韓論이 대두했다.

조선은 프랑스 미국 등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열강에 맞서 배외정책을 폈으나 끝내 일본의 강요에 따라 1876년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일본공사관이 들어서고 일본의 외교관과 상인이 조선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조규의 일환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원산 등 3개 항을 개항했으며 일본인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상업 활동을 벌였다.

18) 『梧下記聞』 首筆.

19) 『沔陽行遣日錄』.

뒤이어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등과 연달아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리해 이들 공사관은 서울 정동을 중심으로 들어섰으며 개항장에서 통상의 자유는 물론 종교 선교의 자유도 획득했다. 그러니까 열국의 공사관은 외교만이 아니라 통상, 선교, 여행의 자유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은 광산개발권 산림벌채권 전차와 전기와 철도의 부설권 등 이권을 누렸다.

그런데 청국만은 열강과 다른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곧 조선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藩屬 국가이므로 외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우기고 중국공사관을 설치하는 대신 통상업무 관련 기구인 상관만을 설치했고 그 총지휘자로 원세개를 파견했다. 무역관계를 약정하면서도 條規라 하지 않고 貿易章程이라 했다. 원세개는 종전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사대외교와는 달리, 청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고 우기면서 식민지 총독처럼 군림해 조선의 외교권을 대행하려 들었다. 그 보기로 이홍장이 주선했던 이루어진 1882년의 조미수교조약을 들 수 있다.

1. 농민전쟁 이전의 한반도 정세

1) 이권 각축장이 된 한반도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유럽의 발칸반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열강의 이권이 걸려 분쟁이 야기된다는 뜻이었다.

통상을 통해 사치품 석유 옷감 등 외국의 신문물이 수입되는 대신, 조선의 쌀 콩 소가죽 금 은 등 1차 산품인 식량과 원료가 유출되어 농민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했다. 또 농민과 민중은 차츰 외국인을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반감을 보이는 배외의식이 짙게 깔렸다.

조선에서 전개된 열강의 패권은 초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초기 일본에 기선을 제압당했던 청국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씨 문벌세력과 결탁해 있던 원세개

는 그 막후인물인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친진에 유폐시키고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또 1884년 갑신정변 때에는 친일 개화파와 끈이 닿았던 일본군을 몰아내고 주도권을 잃지 않았으며 무역 등에서 일본보다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다.

청국은 속내로는, 조선은 번속이기에 외교는 물론 내정을 지도한다는 정책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표면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으며 열강은 조선은 청국이나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국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일본은 조선의 청국 지배권을 배제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속셈이었고 열강은 조선의 이권을 차지하려면 청나라나 일본의 기득권을 부정해야한다는 외교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제정 러시아는 동남부 시베리아로 진출하려는 국제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식민지와 조차지를 경영하던 영국은 러시아와 국제적 긴장관계에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부동항을 확보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려하자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키 위해 1885년 남해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병영과 포대를 건설했다. 이에 러시아가 항의했으나 물러나지 않다가 청국의 개입으로 겨우 철수했다. 이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중립을 일찍이 선언하고 나섰다.

2) 일본의 한반도 정세인식

일본은 대륙진출과 정한론을 기본으로 해서 조선의 정치적 동향과 민중의 동태 등을 기초로 해서 정세를 분석했으며 이권의 확보와 상인을 포함한 거류민의 안전을 당면의 문제로 내세웠다.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독립국이라고는 하나 실체는 없고 단지 겨우 금일의 일루

의 명맥만이 간신히 明滅의 사이를 이어가고 있다. 무슨 연유이든 실로 조선은 동양에 있어 발칸반도이다. 사방의 이웃이 그 손톱과 이빨을 갈면서 그 고기를 살핀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또 어찌 하지도 않았다. 러시아는 결코 조선을 아우를 수 없고, 영국은 감히 조선을 범할 수 없다. 支那 또한 조선을 자기나라에 예속시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 또한 용이하게 조선을 움직이기 어렵다. 이것은 동양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그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의 것이다. 돌아보면서 나라의 내부 모습을 관찰하니, 각종 불평당의 숨은 세력이 지금은 점차 그 걸음을 내딛어 정부의 기강이 흔들리는 기회를 타서 혁명을 간절히 바라고, 內地 여러 곳에서 봉기하여 안으로는 간사한 자를 배척하여 忠良에 힘쓰고 밖으로는 斥倭, 斥洋주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행위는 지극히 착실할 것을 뜻으로 하고 망동을 피해 오직 지방 토민의 환심을 사는 것에 노력하였다. … 조정을 싫어하는 토민은 다투어 이에 응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하였다.²⁰⁾

여기에서는 동양평화를 내세우면서 조선 내부의 사정을 논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평당은 동학교도들이었다. 조선 내정의 위기 상황은 곧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또 위와 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이 망하면 청국이 추위진다. 조선이 청국에 속하는 것은 영국이 기뻐하는 바인데 영국은 실로 러시아의 원수이다. 우리나라 또한 조선과 이와 입술의 관계가 있다. 鷄林(조선의 별칭)의 들판이 어찌 하여 他人의 입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실로 동양의 발칸반도와 같은 이유인데, 하나의 작고 약한 나라라고 하지만 천하의 이목이 이곳에 쏟아져 그 성패 여하에 주의하고 있는데 또한 당연하다.²¹⁾

20) 『甲午朝鮮內亂始末』 서론에 나옴. 編者는 익명인 函南逸人으로 되어 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청나라와 영국과는 달리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곧 조선에 내란이 일어나면 일본은 전통적 관계로 보아 하나의 임무가 주어진다든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충실하게 보도하고 여론을 환기하고 있는 신문 등 언론은 일본의 개입을 주장하면서 더욱 당면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일본의 언론은 일본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의 조선정책에 대해 논설을 통해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2. 천진조약 이후 조선의 출병문제

1) 일본군 출병의 명분 만들기

다음으로 중국 일본 두 나라가 서둔 조선출병의 배경과 그 명분을 알아보기로 한다.

갑신정변 시기 청군이 일본군과 군사 대결을 벌이면서 일본 군인의 살상, 일본공사관의 피해 등이 일어났다. 일본은 이로 해서 조선에서 한 발 밀려났다. 그리하여 갑신정변의 배상문제를 들고 나왔다. 일본은 청국에 대해 전면 전쟁을 불사한다고 압박했고 청국은 복잡한 내정과 열강과 대치하면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리하여 北洋大臣 李鴻章은 일본총리대신 伊藤博文에게 굴복해 보상금 합의를 보았다.

1885년에 체결한 천진조약은 표면으로는 청일조약이지만 한 마디로 말해 조선에 대한 패권싸움을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그 조항 중 3조에, “조선에 변란이 일어나 출병할 적에는 어느 한 나라가 상대국에게 통고하기로(知照出兵)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내용은 이토오 히로부미가 주장해 삽입되었는데 청이 조선 정책에 대해 일방적 간섭을 배제하려는 공작이었다. 겉보기에는 하찮은 장치 같지만 내용으로는 조선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21) 『甲午朝鮮內亂始末』 「朝鮮의 危機」에 나옴.

그 뒤에도 일본은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패권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일본은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2) 조선출병의 계기

1892~3년 사이 마침내 조선에 사건이 터졌다. 동학교도들이 광화문에서 교조신원을 호소하고 연달아 척양척왜를 주장하면서 먼저 서울 외국공사관에 벽보를 붙여, 돌아가라고 외치기도 하고 모은에서 대대적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시기 일본 내각과 외무성에서는 일본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출병을 논의하고 육군과 해군은 행동으로 옮기려는 공작을 꾸몄다. 내각총리대신 등에게 보낸 이 관련 의 현지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정부와 국민이 점점 증가하는 동학당 군대로 인해 염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일본인 보호를 위한 방책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비상시에 함대들을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라이플 100자루와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두 함대는 며칠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이는 현 단계에 그리 큰 위협의 우려는 없습니다.²²⁾

또 다음날 기사에는 서울주재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己) 변리공사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동학당의 세력이 점점 增張되기 때문에, 조선 官民 모두가 매우 불안한 모습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 臣民(일본인) 보호를 위해 군함을 인천에 파견하고, 아울러 그들의 自衛에 쓸 수 있도록 소총 100정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중국

22) 『日本外交史料館文書』, 1893년 4월 15일.

함대 두 척은 며칠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언급 했지만 현재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 군함을 파견할 것과 자위를 위해 소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오이시는 이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에게 알리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일단 決裂 상태를 보인다면, 조선정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동학당을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채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경험에 비추어 오히려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경성에 채류 중인 일본인은 약 700여 명으로, 대부분 당장이라도 참화를 만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비함 1척이 인천에 정박 중이지만 소형이어서 승선 인원도 소수입니다. 유사시에 충분히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군함 한 대를 증파하는 일은 가장 필요한 시기로 생각되므로 서둘러 파견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각 국 군함이 속속 인천항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보아도 모두 본 건에 우려를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찮은 관직에 있으면서 쉽게 동학당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을 할 때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류 외국인을 축출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를 실제로 결행할 만한 용기는 아마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만일에 하나라도 사건이 발생하여 보호를 하지 못함으로써 17년 전의 행적을 재현하는 일이 일어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미천한 관직의 직책상 만일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²³⁾

23) 『日本外交史料館文書』, 1893년 4월 10일.

여기에서는 조선군이 동학당을 진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신정변 당시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이때의 출범은 표면으로 보면 단순하게 공사관 또는 거류민 보호만을 내세우고 있다. 1893년 보은집회와 원평집회의 동학농민군 집결에 대해 신속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는 두 집회가 전투를 벌이지 않고 해산한 탓으로 이 계획은 중지되었던 것이다.

마무리 - 변혁운동의 단계적 상승의 결과

일본은 개항 이후 많은 정보원을 동원해 조선의 여러 사정을 수집해서 정리했다. 이들 정보원은 외교관과 기자를 비롯해 상인 유학생을 활용했다. 그리하여 집권세력인 민씨의 동향과 수령들의 부정 비리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어 민중의 동향과 저항의식을 낱낱이 살폈다. 일본 정부와 외무성은 이를 근거로 대조선정책을 입안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 외무성은 열강의 대조선정책을 파악하고 영국 미국 등 열강을 이용해 러시아와 청국의 대조선정책을 견제했다. 그리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정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일본은 우월적 발언권을 가지고 조선정책을 폈다.

동학세력은 1890년대부터 호남의 동학세력이 확대되자 더욱 위세를 과시했다. 집회를 열면 예전과는 달리 수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측의 분석대로 진동학당과 위동학당 곧, 현실타협파와 변혁지향파가 갈라져 현실인식을 달리했다. 두 세력은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이견을 보여 대결양상으로까지 변졌으나 끝내 타협을 이루었다.

전국적 규모의 보은집회와 변혁파 중심의 원평집회는 단순한 교조 신원이나 변혁지향이나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마침내 역량이 결집되어 1894년 전면적 봉기가 이룩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동학농민전쟁을 이용해 대조선침략정책을 수행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았다. 그래서 끝내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이어 일본군을 투입해 경복궁을 강점했던 것이요,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선 것이다.

[논문접수: 2013. 11. 2, 심사시작: 2013. 11. 15, 심사완료: 2013. 12. 2]

주제어 : 동학, 동학농민혁명, 교조신원운동, 최시형, 보은집회, 원평집회, 복합상소운동

